소통 하나에 혁명 넷

(창41:1~16)

9.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10.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11.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12. 그 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14.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소통 하나에 혁명 넷>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소통 하나에 혁명 넷'
소통 하나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서 네 가지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소통과 불통이라는 단어가 박 근혜 대통령과 연관되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 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불통인사라며 공무원 노조와 여당까지 비난을 하며 나섭니다. 불통 정치라고 여당이 그래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생리상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비난도 동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나라를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이지요.
그런데 이런 지지와 비난의 입장을 떠나서 논리적으로만 볼 때에 박 근혜 대통령의 정치와 인사가 불통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통은 그 이면에 다른 방면으로의 소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방면으로의 소통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 방면의 불통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박 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불통에 비교하면 이건 '새 발의 피'입니다. 그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불통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떡 먹고 배불러서 좋다고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불통의 모습을 보이시고, 심지어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과도 불통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불통의 이유가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의견에 목숨 바쳐 동의하시는 소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불통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여기에서 소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소통의 현재진행형을 유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불통할 수밖에는 없고 이것은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박 근혜 대통령이 자꾸 불통이라고 비난을 받는데, 어느 방면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불통인지, 그 분의 정치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박 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 쪽을 피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불통은 하나의 다른 방면으로의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포기해야만 불통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 소통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까? 몰지각하고 몰이해한 제자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냥 불통의 상태에서 오해를 받고 가십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먹고 배부르고, 병이 나았다고 쫓아오는 사람들과 소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불통의 모습은 마16: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목에 걸고 다니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눈으로 보며 사람이 말라비틀어지도록 매달리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런 불통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이 소통은 다른 방면으로 불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 불통의 관계에 놓인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현재진행형으로 소통을 유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각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과 요셉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히브리 청년으로 노예이자 죄수 출신이었던 자가 왕 앞으로 불려가면서 이제 총리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와 공통점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왕상3: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재판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뽕 가십니다.
왕상3:10-11, 13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라고 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현재진행형으로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의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도 보통 총리가 아니라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끼워줍니다.
인장반지라는 것은 왕의 직인이고 결재할 때 쓰는 반지인데, 그것을 금방 감옥에서 나온 30살 청년에게 넘겨버립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있는 모든 재화를 두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감동적인 것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기까지의 요셉의 인생여정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바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가지의 혁명적 요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통 하나로 네 가지의 혁명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혁명은,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혁명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총리의 자리는 야곱식의 삶의 정점입니다. 이 땅 위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추구하는 삶의 정점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인 총리입니다. 그것도 왕의 100% 지지를 받는 자리에 서서 슈

퍼 강대국인 애굽의 모든 권력과 재화를 두 손에 넣고 주무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인데, 복을 추구하는 전문가인 야곱도 상상 못할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야곱처럼 복을 추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식의 삶의 방식은 벧엘 들판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도 맨 처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으면 어떻게 더 잘 먹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질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어떻게 지금 주어진 복들을 유지하며 오래 살까를 생각해서 오직 관심이 건강뿐입니다.

연세가 60세 넘어가고 은퇴해서 연금 받으며 먹고 살 걱정 없는 모든 분들의 걱정은 건강이에요.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길을 찾고 형통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세상을 내다보면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언제나(Always)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소통의 현재진행형을 유지하기만 하면, 삶의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영화의 몽타주처럼 나를 지나가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선민의 삶에서는 내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나를 지나갑니다. 혁명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혁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는 이것이 엄청난 혁명 아닙니까? 단, 한 가지 지금 내 마음에 내 몸보다도 가까이 와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안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게 되고 그 증거로 마음에 샬롬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야곱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 길을 추구하면서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통하며 하나님께 마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길에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용물이 나를 스쳐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혁명은, 정보와 지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나만 모르는 것이 있을까 늘 불안해하고, 성경을 볼 때조차도 사람들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요구하는데 무식한 소리예요.

성경은 체계적으로 배워서 끝이 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2-7절에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 그 뒤에 또 흉하

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 꿈을 꾸고 났더니 그 잡아먹는 모습이 너무 두렵습니다.

앞에 나왔던 일곱 마리의 암소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것이 잡아먹히는 꿈은 끔찍한 것이죠. 그리고 먼저 나온 일곱 이삭이 아름답고 무성할수록 잡아먹히는 모습이 끔찍하고 걱정이 가득해서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를 다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술객(術客)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 '숨겨진 비밀들을 드러내서 밝히 설명해 주는 자'입니다.

해몽가, 점술가, 주술가로 주로 미신 숭배자들인데, 그 당시로서는 삶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계발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책을 써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길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박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탁월한 학문과 지식의 소유자들인데, 각종 재판이나 교육이나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선진문명을 이룬 당대 최고의 왕국인 애굽 안에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다 동원되었는데 이 꿈 하나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혁명적인 해방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식과 정보와 경험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홍수가 된 정보와 지식 중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찾느라고 눈이 시뻘개져서 검색에 검색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귀를 기울이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이 많은 애굽의 지식인들이 다 모였어도 아무도 진짜 결정적일 때에 단 한 마디를 못합니다.

이때 죄수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 청년이 나타나는데, 이 청년은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노예에게 이런 것이 알려질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애굽 안에는 왕궁 도서관이 있었고, 왕궁 내에 거하는 술객과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학문적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는 못해요.

바로 왕 앞에서,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에, 그 장소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 노예생활 10년과 감옥생활 3년을 한 이 히브리 청년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줍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많은 지식과 정보와 학문의 홍수는 사람을 바보석학으로 만듭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술객과 박사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애굽의 정치, 문화, 경제, 교육에 대해서 일평생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상황에서 한 마디를 못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제 7년간 풍년이 들고나면 7년간 흉년이 들어서 14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많은 지식과 정보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지식 정보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취해야 할 단 하나의 나를 살리는 지식은 학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검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박사나 멘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진행형으로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혁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다른 지식은 필요 없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다른 지식들을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 자체로 지식에 의지해서 내가 행복하고 나의 길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과학적 지식은 그 자체로 과학입니다만, 그 과학적 지식을 의지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애굽의 술객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미신숭배자인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혁명은, 모든 행동원리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윤리강령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눈과 마주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고 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의 눈과 마주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혁명이 모든 인생의 좌우명, 모든 행동강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긍정의 힘, 아침 형 인간, 일만 시간의 법칙, 행복한 부부생활 십계명, 좋은 아버지 되는 길, 다 주저 없이 휴지통에 버리세요.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고 모든 말이 사기이고 모든 말이 다 미신입니다.
내가 행동해야 될 단 한 마디의 살아있는 지시, 내 마음에 파고들어서 내 마음을 움직이며 나를 행동하게 할 단 한 마디의 지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집니다. 그 한 마디의 지시를 따르는 하나의 행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어가는 것이죠.
행동원리로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늦게 일어나세요. 어떨 때는 2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문제는 자든 깨든 먹든 길을 가든, 언제나 소통의 현재진행형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 세상에 주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현재진행형으로 유지한다고 믿고 행동한 것이 결과적으로 율법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말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면 율법이 기억 될 수 없을 만큼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지 않고 있어도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도 절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동강령과 좌우명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키세요.
문자로 된 좌우명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좌우명을 중심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생각이 돌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는 폐쇄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관찰해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폐쇄되어 버립니다.

네 번째 혁명은,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오늘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 꿈이 자기의 임무와 관련 된 일인데 왜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전화도 청색전화와 백색전화가 있었습니다.
백색전화는 내가 소유한 것이고, 청색전화는 빌려 쓰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 가정환경조사서에 전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던 항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서울 구로공단에 취직한 경상북도 두메산골의 아가씨는 구정이 다가왔는데 바빠서 못 내려갈 때에, 열댓 가구 사는 시골의 이장님 댁에 전화를 겁니다. 모든 소식이 이장님을 통해서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우리 어머니께 못 간다고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10분 뒤에 다시 전화를 걸 테니 어머니를 좀 불러달라고 이장님께 전화를 합니다. 소통의 병목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이게 스티브 잡스가 일으킨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 그리스도를 통하

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장님 역할을 하던 요셉을 통해서만 알려지던 병목현상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스마트폰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혁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번제는 왜 이렇게 매일 하느냐?
어떤 목사님은 가당치도 않게 저를 멘토로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술객의 위치와 같이 매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설교하는 이유는 그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목회 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현재진행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지, 그분의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해준다면 제가 그분 위에 올라타는 것이고 그 분은 저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개인택시 하던 것을 팔라고 내게 말씀하셨어. 이 나라에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 이 나라의 국민이면서 이 나라에 사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립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 설교를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소통의 현재진행형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스마트폰이에요. 개인이 쓰는 스마트폰을 가정에서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이장님의 전화로 소통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요셉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혁명이 일어나고, 이 네 가지 혁명을 매일 같이 경험하고 만끽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혁명이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절대 평강의 초석이 되는 것들입니다.

소통 하나에 따라오는 네 가지 혁명적 자유를 오늘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진정한 종교개혁은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삶의 혁명은 네 가지 방면으로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의 현재진행형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오니, 이 네 방면의 혁명적 자유를 만끽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